

1. 머리말
2. 공장의 여성노동
 - 2.1 여성고용의 수급변화
 - 2.2 생산기술변화와 여성고용
3. 기술변화와 여성고용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3.1 자료소개 및 기술적 통계량
 - 3.2 실증분석
4. 남녀임금격차
5. 맺음말

1. 머리말

세계각국의 근대적 공업화과정에서 여성노동력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성의 공장으로의 취업은 경제적 변화만이 아니라 제도적, 문화적 변화까지를 포괄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기울여온 문제의 하나이다. 20세기 후반 한국의 고도공업화 과정에서도 여성노동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 경제수석이었던 오원철은 그의 한 저서에서 1960년대를 ‘여공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오원철 2006) 즉 경공업중심의 공업화과정에서 여성노동력이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1960년대 한국사회에 양질의 여성노동력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전통사회의 여성은 대체로 사회활동에 억압을 받았다. 조선후기 대외적 경제활동에 억압받던 여성이 어떻게 1960년에는 양질의 노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었고 여성에 대한 사회의 제도적, 문화적 제약은 어떻게 해체되어갔을까?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1960년대 이전의 제조업 여성노동시장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개항 이래 식민지기를 전후한 시기는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가 공장노동자의 주요부분으로 자리잡아가는 시기였다. 이것은 다양한 상황의 복합적인 산물이었으나 그 근저에 깔린 가장

¹ 본 논문은 주로 식민지기를 다루고 있으나 1900년부터 해방후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국명은 ‘한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20세기 전반기 한국’을 제목으로 삼았다. 그리고 ‘공업화’는 제조업의 성장과 기술변화, 그리고 그에 수반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생산기술의 변화와 노동수급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숙련공 중심의 생산기술이 비숙련공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면 여성고용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며 저임금남성노동력이 충분하다면 또한 여성을 고용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낳지 않았을 것이다. 식민지기 여성의 공업방면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남아 있어 이를 활용한 연구는 여성노동의 전반을 조망하는 연구에서부터 개별업종의 분석에 이르기까지 많은 축적이 이루어져왔다.² 생산기술변화와 여성고용의 관계의 문제도 많이 다루어져온 주제이지만 대체적으로 부수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기술변화의 문제와 함께 또 하나 간과되어온 문제는 노동시장의 수급변화이다. 노동시장의 수급변화도 여성의 고용량뿐만 아니라 남녀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생산기술의 변화는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변화시키고 수요는 노동공급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이 과정은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며 일정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된다. 따라서 생산기술변화와 노동력의 수급변화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산기술의 변화와 그로 인한 여성노동시장의 형성이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공업화과정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부수적인 문제들로 다루어져왔던 생산기술변화와 여성노동력의 수급의 변화를 주된 분석문제로 삼았다. 그리고 고용량과 남녀임금격차를 지표로 삼아 생산기술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수급의 변화가 여성의 고용량과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리고 여성고용지표(고용량, 임금)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추적함으로써 기존의 논문들이 대체로 정태적 분석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가령 기존 논문들은 특정 시점의 민족간, 성별간 임금격차를 비교함으로써 조선인 여성노동자가 민족적, 가부장적 차별구조라는 이중적 질곡아래 놓여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안연선 1987, 정진성 1988, 이정옥 1991) 이러한 정태적 분석은 당시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질을 보여주는 것에는 탁월하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점이 있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임금격차는 시간에 따라 변화했다. 그 추세가 어떠한지와 그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식민지기부터 해방직후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여성노동력의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하 2 절에서는 여성의 공장노동력의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고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측면에서의 변화와 공급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절에서는 공장센서스 자료를 통해 여성의 고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적 변화와 관련을 맺으며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² 정진성(1988), 이정옥(1991) 등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강이수(1994), 안연선(1987), 서형실(1989), 이승희(2003) 등은 후자에 해당한다.

분석한다. 4 절에서는 남녀임금과 공장센서스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생산기술의 변화가 남녀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남녀임금격차문제를 통해 살펴본다. 논문은 자료의 제약상 주로 식민지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기와 해방 후의 자료도 가용한 범위내에서 활용하였다. 여성노동력의 고용과 임금의 변화는 개항이래의 새로운 생산기술의 도입과 그것에 따른 생산양식의 장기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여성노동력의 동태를 통해 생산양식의 장기적인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공장의 여성노동의 실태와 성격

2.1 여성고용의 수급변화

여성을 공장노동력으로 고용하는 기록은 구한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공 채용에 관한 최초의 기사는 1900 년 전환국이 지폐제조를 위해 15 명의 여공을 채용했던 것이다. 당시의 지원경쟁률이 25 대 1 에 이르렀다.(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 1972: 70) 20 세기 초 경성에는 직업을 찾고 있는 다수의 유휴 여성노동력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초기의 공장들은 이렇게 도시에 존재하는 유휴여성 노동력을 광고나 입소문을 통해 문전모집하였을 것이다.³ 다음은 1901 년 신문에 재재된 여공모집 광고이다.(황성신문 5 월 13 일자)

‘본 회사에서 남녀직공을 모집하는데 직기(織機)는 편리한 발동기를 이용하여 인력은 비(費)하지 아니하고 조직하였으며 연속한 자는 직기 이삼좌(二三坐)를 능히 운전하며 매일 매좌에 칠팔십척을 직조하며 생소한 인(人)이라도 칠팔일만 정밀히 견습하면 일좌에 매일 오육십척은 능직(能織)하고 수십일 숙습(熟習)하면 이좌를 운전하여 매일에 일백오육십척은 무난히 직조할 거시오 공전(工錢)은 매척에 엽(葉) 2 분식 급할 터이오니 생소한 인이라도 칠팔일만 정밀히 견습하면 매일 칠팔량 공전은 무려히 득할 터이오 공장 내에 남녀를 구별하여 혼잡치 아니하게 할터이니 유지(有志)한 인은 속히 본 회사로 래문(來問)하옵. 단 래왕이 불편한 인은 본 회사 내에 유숙(留宿)도 시키고 여인은 숙소도 구별히 유할터이옵’ 동영동한성제직회사

본 광고는 동력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작업도 터득하기가 쉬워 누구나 일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즉 생산의 기계화와 함께 힘이나 기술의 필요가 적어져 노동이 반숙련 및 비숙련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여공을 고용하면서 공장 내에서 남녀를 구별하여 서로 부닥치게 하지 않게 하거나 남녀의 숙소를 구별한다고 한다. 이것은 남녀가 같은

³ 식민지기 여공을 모집하는 방법에는 문전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 연고를 통한 것, 모집종사자를 통한 것, 직업소개소를 통한 것, 부·군의 알선 등이 있었다.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남녀유별의 사상의 흔적을 보여준다. 초기의 여공고용의 특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사는 1910년대 조선의 최대 기업인 동아연초주식회사의 것이다. 동 회사는 1910년대초에 낸 광고에서 여공모집을 “국문약해자(國文略解者)에 한함”이라는 제약조건을 내걸었다.(이효재 1978:143) 연초공업은 초기에는 주로 성인남성을 고용하였으나 1910-20년대 기계화와 함께 여성과 유년노동 고용 중심으로 변해간 대표적인 산업이다. 일본어를 이해하는 여성을 고용하는 것은 최하층 여성보다는 교육받은 여성을 선호하는 것이다.⁴ 이것은 작업의 이해 및 감독의 편리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도시의 다수의 유휴여성노동력이 존재하여 기업이 양질의 노동력을 가려서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식민지기 공장의 연령별, 성별, 민족별 노동자

	성인공					유년공			
	남			여		남		여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1911	*1479	*11615	*261	*334	*360	-	-	-	-
1915	3072	13881	402	469	3866	31	2299	0	379
1920	6561	33019	1950	738	7027	97	3153	12	3001
1925	5737	51228	3494	443	14918	179	2045	4	2090
1928	6514	60354	4469	434	21839	147	2260	3	3411
1930		70443			23419		1931		6150
1935		116286			40154		3817		8514
1940		201962			62846		10962		19201
1943	24857	223305	2724	2506	42893	1867	29021	305	43431

주 : 1) 1911년의 성인공은 유년공을 포함한 값.

2) 유년공의 정의는 1928년까지는 15세 미만, 이후는 16세 미만임.

자료 : 1911-1940년은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1년과 1915년은 공장표에서 계산함, 1943년은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查結課報告』에서 노동자 30인 이상의 공장의 민족별 연령구조를 가중치로 활용하여 전체노동자에서 추계함.

⁴ 19세기 말 일본 산업혁명 초기의 여성공장노동자의 공급원은 도시하층민이나 근방농촌 하층농가의 여성이었다. 산업화에 따라 노동수요가 확대되면서 1890년대 후반부터 원격지 농촌으로부터의 모집이 본격화되었다.(中村政則 1983:13) 노동공급원이 농촌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여공의 중심은 교육받지 않은 농촌여성으로 이동하였다.

표 1 에서 보듯이 병합 초 공장 노동자의 거의 대부분이 일본인 및 조선인 남성이었다. 1910 년대부터 연초공업, 정미업, 직물업을 중심으로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였다. 초기에는 일본인 여공이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고용주가 일본인이었으므로 처음에는 일본인여성을 선호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고용가능한 일본인 여성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보다 저임금을 받는 조선인여성들을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되어갔다. 처음에는 주로 성인여공이 고용되었으나 차츰 제사업을 중심으로 유년여공의 고용도 증가하였다. 일본인 여공은 1920 년을 고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인 남성의 고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일본인여공의 역할은 조선인남공과 여공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일본인여공은 1930 년대 초반 일본대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증가추세로 반전하여 1943 년경에는 2811 명에 달하게 된다. 1943 년 일본인 여성이 주로 취업한 분야는 화학(1219 명), 방직(616 명), 금속(341 명) 등이었다. 조선인여성의 주된 취업분야는 방직(52277 명), 화학(11811 명), 식료품(7393 명)으로 분포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가스, 전기, 수도에서는 일본인여성 146 명, 조선인여성 99 명으로 일본인여성의 수가 더 많았다. 1943 년 여공들 가운데 일본인여성은 대체로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이 대부분이고 상당수의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있는 반면에 조선인여성은 90%에 가까운 여성이 초등학교 미만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⁵ 조선인남성과 조선인여성의 학력도 차이가 난다. 조선인남성은 여성과 달리 40%가량이 초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은 취업업종, 담당작업, 직위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성의 고용은 노동력부족의 상황에 의해서 촉발되기도 한다. 가령 경성의 공장에는 1915 년 1000 명가량의 여성이 고용되었으나 1 차대전기의 대전경기의 영향으로 1919 년 4 천명가량으로 증가하였다가 1920 년대 초 다시 2 천여명으로 감소하였다.(『商工累年統計書』) 경성의 남성은 전쟁과 하등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나 경성이라는 한정된 노동시장에 촉발된 생산충격이 일시적인 노동력부족을 가져오고 결국 여성을 가정에서 일터로 끌어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전쟁경기가 끝나고 상당수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다. 전반적으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고 임금하락에 따라 노동유인이 감소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음은 전후공황이 끝나고 본격적인 일본인 자본의 조선진출이 시작될 무렵인 1921 년의 기사이다.

‘...조선에서 가장 대량의 소비를 보이고 장래에 수요가 차츰 증가할 면포, 마포, 건포의 제직이나 제사업 등 장래 조선에서 대규모로 발흥하리라 보이는 섬유산업에 여성노동이 필요하다. 조선여성의 노동력을

⁵ 1943 년 30 인 이상의 제조업체 종사여성 일본인 2543 명, 조선인 70120 명 가운데 초등학교 미만의 일본인은 39 명에 불과하지만 조선인은 62538 명에 달한다.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結課報告』)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관의 타파, 생리상의 문제 및 가사노동 등에 관하여 연구해야 한다. 가령 조선에서는 4 계절 백의를 입기 때문에 세탁에 들어가는 여성의 노동력이 막대하다. 구관을 타파하여 염물착용의 습관을 들여 세탁에 소모되는 다수여성의 노동력을 생산적 공업방면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⁶

본 기사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여성고용의 중요한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 가사노동과 더불어 결혼과 출산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⁷ 이것은 여성노동력을 구하는 일이 더 이상 쉽지 않은 일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가들이 농촌의 유희여성노동력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기 염색옷 착용운동은 사회개선운동이나 계몽운동의 하나로 총독부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단체들에 의해서 억압적 내지는 자율적으로 행해졌다. 가사노동의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여성은 기혼여성이다. 1921년 10대의 여공은 직공 10 인이상의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 9763 명 가운데 5116 명으로 52.4%이고 1943년에는 30 인이상의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 64749 명 가운데 46395 명으로 71.7%이다. 1921년과 1943년 사이 임금이 낮은 10대의 여성노동력의 고용이 주로 증가하였던 것이다. 표 2는 여성의 연령별 평균임금을 보여준다. 직공수로 가중평균했을 때, 12-14세 여성의 평균임금은 35.8 전, 15-19세의 여성의 경우 51.6 전이다. 20-29세는 63.7 전, 30-39세는 63.3 전이다. 20대 이상을 기혼여성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기혼여성의 임금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숙련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임금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10대의 여성은 주로 농촌출신의 미혼여성이고 20대 이상의 여성은 도시의 기혼여성이라는 차이때문이기도 하다. ⁸

표 2 연령별, 지역별 여성공장노동자의 임금(일당, 단위는 錢)과 노동자수

1921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10세미만	30						15						15
10-11세	37				25	22	40		20				25
12-14세	42		23	35	35	29	33		38	33		90	46
15-19세	60		23	68	48	38	55	45	58	40		68	62
20-29세	69	65	42	77	52	50	65	49	64	35	100	75	75

⁶ 「財界反動來の京城工業界に及ぼしたる影響(上)」, 『朝鮮經濟雜誌』 62, 1921년 2월

⁷ 1920년대 총독부관리였던 賀田直治의 조선인노동자에 대한 평가 참조, "...여공은 조혼과 가정 관계로 외출하거나 기숙생활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다수를 모집하거나 훈련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이상의 2006:55에서 재인용).

⁸ 도시의 기혼여성은 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반숙련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령 임금이 높은 편인 고무화제조업의 성형공은 주로 도시의 기혼여성들이었다.

30-49 세	70		85	82	44	47	72	45	47	45		68	60	
50-59 세	53			60	31	36	58			48	49		39	32
60 세이상	21					44							37	
평균임금	60	65	39	66	46	36	57	47	55	37	100	72	62	
직공수	2200	2	109	559	829	1107	1675	93	399	46	3	158	216	
1931 년														
평균임금	51	36	40	51	36	45	39	42	52	32	27	47	51	
직공수	5535	628	1577	1065	2570	3117	3354	839	2401	357	255	977	4	
1943 년														
직공수	30731	991	2625	2861	5507	6278	13795	2083	7477	3124	2126	5145	3048	

주 : 1) 일본인을 포함한 수치, 그러나 여공의 대부분은 조선인 여성임.

2) 조사대상은 1921 년과 1931 년은 10 인 이상의 직공을 고용한 공장, 1943 년은 5 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공장.

자료 : 1921 년은 『會社及工場に於ける労働者の調査』, 1931 년은 『工場及鑛山に於ける労働狀況調査』, 1943 년은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結課報告』.

1920 년대와 30 년대의 공업화 과정에서 기혼여성보다는 보다 임금이 저렴한 미혼여성들의 고용이 증가하였다. 기혼여성의 채용에는 한계가 있고 그들의 유보임금은 높지만 미혼여성의 유보임금은 낮기 때문이다. 미혼여성의 경우를 살펴보자. 미혼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은 그다지 넓지 않았다. 1930 년 국세조사에 따르면 공업을 제외한 도시의 미혼여성의 대표적인 직업은 유흥업, 가사고용인이었다.⁹ 여성 공장노동력의 주된 공급원이었던 농촌여성도 가내 유흥노동력에 해당한다. 농촌에서 그들은 저고용상태라고 할 수 있다. 농촌 미혼여성이 가내제직에 종사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일소득은 20-30 전 정도였다.(권태억 1989: 233) 그나마도 계절적으로 제한된 수입일 뿐이다. 반면에 공장에 취업을 할 경우 보다 고강도의 노동을 해야했지만 안정적이고 보다 높은 소득을 가질 수 있었다.

농가의 가장이 합리적인 경제행위자라고 가정했을 때, 그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이다. 딸의 공장취업은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딸은 집을 떠나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려야한다. 가내에 남아서 가내직포에 종사한다면 소득은 작지만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가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여성에 입장에서서는 공장이 있는 도시로의 이주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주지만 현실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된 노동과 통제된 생활일 뿐이다. 농가의 가장은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려하겠지만 농가의 경제사정과 가내공업의 수익성에 따라 행동에 변화를 보일 것이다.¹⁰ 농가의 가장은 자녀의 삶을 전통적 가치관의 틀내에서 통제하길 원한다. 따라서 그들이 딸의

⁹ 도시여성의 직업은 공업, 상업, 가사사용인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업은 상당수의 집대부를 포함하고 있다. 공장취업을 제외한다면 도시의 직업여성은 난전을 열거나 술집이나 찻집으로 가거나 상류층 가정에 하녀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¹⁰ 가령 대공황기 농가경제의 악화와 직물가격의 폭락은 여성노동력의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엑소더스를 가져왔다.

공장취업을 허용하더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혼이다. 농가의 가정은 여성의 공장취업을 허용하더라도 결혼문제에 있어서는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려고 하였다. 즉 미혼여성이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결혼적령기가 되면 농촌으로 돌아와 부모가 정해주는 남성과 혼인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 여성의 공장취업은 10 대 초에 취업하고 10 대 말에 가정으로 회귀하는 형태를 보인다.

여성을 통제하고자하는 가정의 욕구는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공장주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공장주는 취업한 여성의 삶을 통제함으로써 임금상승요인을 줄일 수 있고 가정을 안심시킬 수도 있었다. 가정은 공장에서의 통제된 삶을 전통적 가치들을 지킬 수 있는 기제들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억압적 노동계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억압적 노동계약은 여성의 이동을 극도로 제약함으로써 저임금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일본에서 초기의 공장여성노동력의 고용계약은 가정과 공장주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연기노복의 계약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서 노동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연기노복의 계약형태를 가진 사례가 존재한다.¹¹ 10 대 여성의 노예적 취업이 주된 고용형태의 하나였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억압적 고용이 전부는 아니었다. 이러한 통제의 틀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노동력도 존재하였고 여성의 경제활동에 따라 결혼연령도 차츰 늦춰져갔고 여성의 사회활동의 폭도 확대되어갔다.

1921 년과 1931 년의 자료를 비교해보자. 표 2 의 1921 년의 임금표에 따르면 지역간 임금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1931 년의 평균임금의 지역별 격차는 1921 년에 비하여 많이 줄어들었다. 이는 우선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별 분포에 따른 격차가 해소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기와 경남의 경우처럼 주변 노동력의 흡수에 따라서 평균임금이 낮아진 지역이 있는 반면에 충남과 경북처럼 고용이 증가하면서 평균임금이 상승한 경우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1920 년대 공업화의 진행은 여성의 지역간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음을 알 수 있다.

표 3 1931년 직공 100인 이상의 여성 다고용 산업의 지역별 분포

도시	업종공장수(남성노동자, 여성노동자)			
경성	직물 2(30,261)	제사 3(81,732)	재봉 3(229,217)	고무 2(93,278)
	연초 1(621,582)			
시흥	직물 1(77,265)			
고양	제사 1(56,478)	고무 1(30,90)		

¹¹ 일본의 경우, 여성들은 마치 前貸金を 매개로 일종의 채무노예와 같은 기간제 계약을 맺고 공장으로 들어갔다. 초기에는 계약의 당사자는 여공본인이 아니라 호주, 대개 여공의 아버지였다.(中村政則 1985:14, 51-55) 1940 년대 기록이기는 하지만 조선의 경우에도 고용주와 아버지가 선불금을 매개로 장기간 억압적인 노동계약을 맺곤 하였다.(김인호 1998:231,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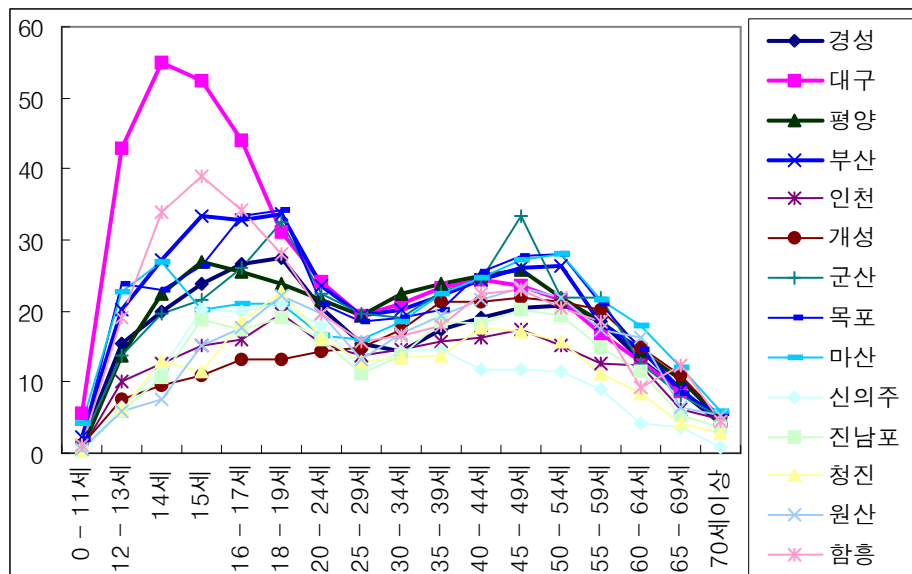
평양	제사 1((75,458)	양말 3(412,90)	고무 6(496,531)	연초 1(179,176)
부산	방직 2(656,1688)	고무 3(227,635)		
대구	제사 3(346,2081)	연초 1(306,483)		
광주	제사 3(104,1480)			
전주	제사 2(76,677)	연초 1(164,170)		
청주	제사 1(28,296)			
연기	제사 1(17,135)		공주	제사 1(10,168)
예산	제사 1(34,323)		대전	제사 1(98,637)
창원	제사 1(43,320)		통영	직물 1(11,103)
봉산	제사 1(74,409)		함흥	제사 1(65,488)

자료 : 『工場及鑛山に於ける勞働狀況調査』

1915년 100명 이상의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은 15개소였다. 그 중 11개소가 정미업이고 1개소가 제면업, 3개소가 연초업이었다. 이 공장들은 목포에 소재한 제면업 1개소, 인천 정곡업 2개소를 제외하면 모두 경성과 부산에 위치하였다. 경성에는 정곡업 1개소, 연초업 2개소가 위치하였고 부산에는 정곡업 8개소가 위치하고 있었다. 1910년대까지 다수의 여성노동력을 고용하는 공장은 수출산업인 연초와 정곡업으로 주로 부산과 경성과 같은 대도시에 소재하였던 것이다. 표 3과의 비교를 통해 1915년부터 1930년대 초까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1910년대에는 정곡업 중심이었으나 1920년대에는 제사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방직공장이 전국각지에 설립되었다. 고무공업과 연초공업도 주요 도시들에 흩어졌다. 이러한 여성집약적 산업의 전국적 분포는 지역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아직 전국적으로 활성화된 여성노동시장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단위의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그것이 지역의 공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시작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공장의 여성고용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다. 여공의 입사와 퇴사의 순환속도는 매우 빨랐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각 공장들은 그 지역의 노동시장에 대한 상황을 체크하고 임금이 높은 지역보다는 임금이 낮은 지역으로의 투자를 늘려갔을 것이다. 특히 제사공업은 조선의 저임금노동력이라는 강점을 이용한 수출산업이었기 때문에 각지의 노동시장의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을 것이다.

여성 노동력의 이동반경은 넓지 않았다. 많은 자료들이 식민지기 동안 여성의 이동반경이 타도와의 경계선에 인접하지 않는 한 도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¹² 식민지기 공장의 채용방식을 보면 “연고에 의한 채용”이 가장 많다.¹³ 가령 1940년 경성직공 11600명의 취업경로를 보면 연고소개에 의한 취업이 남성 70.7%, 여성 51.5%에 달한다. 그 다음 문전모집은 남성 20.3%, 여성 27.1%이고 모집중사자에 의한 것은 남성 7.8%, 여성 18.2%이다. 연고에 의한 채용은 이미 채용되어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최초의 여성고용은 문전모집이나 모집중사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취업한 노동자들이 자신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공장에 소개하여 취업이 증가해간 것이다. 연고에 따른 취업이 가장 다수인 것은 취업정보가 공식적 매체보다는 사적 채널을 통해 흐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도는 오랜시간 이전부터 하나의 행정적, 경제적 생활권으로서 기능해왔다. 따라서 도간보다는 도내의 인적네트워크가 발달해왔을 것이다. 이러한 인적네트워크가 노동이동양상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1930년 도시여성의 유업률(%)



¹² 일반노동자의 경우 남성노동자의 경우에는 타도지역(외국 포함) 출신 노동자 비율은 30.9%이지만 鮮童과 鮮婦의 경우는 6.7%만이 타도출신이었다.(『朝鮮に於ける労働者數及其の分布状態』) 이는 아동과 여성노동력의 경우 도를 넘어서 이주하는 경우가 드물었음을 보여준다. 타도로 이주하더라도 인접도로 이주하는 정도였다. 식민지기 여성의 이동반경은 도내를 넘는 경우가 드물었다.(정진성 1988)

¹³ 특히 방직업종을 제외하면 연고에 의한 채용이 지배적이었다. 1943년 방직업의 경우 전체 여공 50496명 가운데 14280명(연고채용자는 17309명)이 모집중사자에 의한 채용이다. 나머지 업종 37384명 가운데 모집자에 의한 취업은 1854명(연고채용자 15818명)에 불과하다.(『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結果報告』)

자료 : 『(昭和五年)朝鮮國勢調査報告』

대구를 예를 들어 1920년대 여성의 이동패턴을 살펴보자. 1917년 대구에는 荳(약재) 가공, 瓦제조, 정미업 등 21개의 공장이 있었고 이들은 119명의 조선인 여성을 고용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계를 활용하는 조면공장과 정미공장에 취업하고 있었다.(『朝鮮總督府慶尙北道統計年報』) 1910년대 말부터 대구에는 대규모 수출용 제사공장과 연초공장이 들어섰다. 1928년 대구에는 11개의 제사공장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1918~1919년에 설립된 (주)片倉제사방적, (주)山十제사, (주)조선생사가 대규모 제사공장이다. 이들 삼사는 2583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중 572명이 유년여성이고 1675명이 성인여성이었다. 그리고 1921년에 설립된 대구전매지국연초제조공장은 953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중 59명이 유년여성, 513명이 성인여성이다.(『慶尙北道統計年報』) 성인여공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10대 후반의 여성이다.

결과적으로 대구의 인구구조는 타 지역과는 달리 10대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보다 많은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자연출생률(107:1)에 따르면 출산남아의 수는 여아의 수보다 조금 많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수가 많은 것은 외부로부터의 유입 때문이다. 그림 4는 그 원인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대구의 10대 여성의 유입률은 도시가운데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규모 제사공장과 연초공장이 제공한 일자리가 주위 농촌지역의 여성들을 대구로 유인해왔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경상북도 농촌지역의 출생의 여성들이었고 그 다음은 소수의 경남지역 여성이었다.¹⁴ 이는 아직까지 광역적 여성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여성의 이동패턴은 1930-40년대에는 다소 변화하게 된다. 1930년대 중반부터 경성부근에 대규모 방직공장이 밀집하는 등 공업화의 지역차가 뚜렷해짐에 따라 노동력의 이동이 보다 광역화되었다.(박기주 2000) 표 2에서도 1931년과 1943년 사이 여성의 고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특히 경기, 경상지역이 두드러진다. 일부지역의 공업화가 보다 더 진행되고 도별로 노동력수급의 격차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소개소나 모집종사자의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그 중 모집종사자가 보다 더 큰 역할을 하였다. 여성의 이동은 남성에 비하여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했다. 즉 모집종사자의 활동에 따라

¹⁴ 1930년 대구지역의 연령별 남녀구조를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10-19세에 남자 가운데 도내타부면 출생자가 4117명인데 반하여 여성은 6151명이었다. 10-19세 여성에서 남자에 비하여 도내의 타부면 출생자가 더 많다는 것은 경상북도 내의 타지역(농촌)에서 대구로의 이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동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¹⁵ 모집종사자 등에 의해서 원거리 공장에 고용된 여성의 이동은 ‘연고에 따른 취업’에 의해 이동성이 확장되었다. 이동이 광역화되었다고 해서 여성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고용주는 장기간의 채무노예적 계약을 맺어 이동을 제약하였다. 특히 1930년대 중반 이후 여공부족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억압적 성격은 더욱 강해져갔다. 전시기에 여성은 근로보국대, 정신대 등으로 각종 노무에 동원되었다. 여성은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계획에 의해 배분되는 자원으로 간주된 것이다.¹⁶

2.2 생산기술변화와 여성고용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식민지기 여성노동시장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대되어갔다. 취업한 농촌여성들은 도시여성에 비하여 더 어리고 교육받지 않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여성은 대체로 이동성이 낮고 전근대적 관습에 묶여있었다. 여성의 평균근무년수는 결혼과 출산의 제약 때문에 길지 못했다. 따라서 여성들은 경력이나 숙련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상승을 기대할 유인이 작고 하루빨리 여공의 생활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공장주로서는 몇 년 후면 가정으로 돌아가버릴 여성들에게 교육훈련을 할 유인이 없다. 남녀유별이라는 전통적인 사상과 더불어 이러한 경제적 요인이 결합되어 여성의 직업은 대체로 제한된 단순작업에 머물렀다. 그리고 당시의 생산기술은 아직 기계화가 전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의 반숙련 및 비숙련노동자를 필요로 하였다.¹⁷ 여성이 다수 고용되어 있었던 몇 가지 직종을 중심으로 여성의 작업이 대체로 어떠한 성격을 지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¹⁵ 1942년 남공가운데 2.8%가 직업소개소, 2.7%가 모집종사자에 따른 취업인 반면 여성은 1%가 직업소개소, 18.9%가 모집종사자에 따른 취업이었다. 연고에 따른 취업은 남성이 50.8%, 여성이 38.2%였다. 나머지는 문전취업 등의 기타이다.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查結課報告』) 남녀모두 연고에 따른 취업이 가장 많은데 연고가 지리적 이동을 결정하는 중요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북부지역의 노동력부족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이동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연고망의 부재가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을 것이다.

¹⁶ 2차대전기 일본에서는 각 업종별로 여성고용비율이 할당되었다. 이는 최대한 많은 남성을 전투요원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다. (中村政則 編 1985:25) 전통적으로 여성이 취업하지 않은 영역으로의 취업확대는 이러한 사회적 조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여성에게는 비교적 단순간단한 작업, 손을 주로 사용하고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 반숙련적 작업 또는 비숙련적 작업이 할당되었다.

¹⁷ 당시의 대량생산과 기계화는 숙련과 인력의 필요는 덜어냈지만 정밀함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여성노동자의 고용은 공장노동이 힘보다는 여성의 섬세한 손놀림과 규칙적인 노동이 중요했음을 의미한다. (이우연, 차명수 2007:56)

표 4 1911-1943년 공장의 업종별 남녀분포

업종	1911		1920		1930		1940		1943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방직	493	119	1558	2737	5347	15847	13881	37734	27486	52907
금속	303	4	11244	37	5385	80	18930	750	41111	1825
기계	14	0	2412	14	3259	5	34038	1090	47953	1455
요업	1247	16	5819	332	6192	417	15467	2019	33042	4146
화학	72	0	1439	71	11817	5386	66143	19777	53073	13039
제재목제품	221	0	1220	11	3654	71	14738	743	26922	1608
인쇄제본	629	10	2079	53	5073	93	7998	385	9385	676
식료품	2385	545	9056	5199	28150	6820	30716	11075	24672	7511
가스.전기	117	0	541	1	885	10	-	-	7735	246
기타	7874	0	6993	4463	2612	840	11013	8474	10395	5803
계	13355	694	42361	12918	72374	29569	212924	82047	281774	89216

주 : 1940년 가스, 전기는 기타에 포함됨.

자료 : 1911-1940년은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43년은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結課報告』.

1911년 여성은 일부의 방직공장과 식료품 공업 등에 소수 고용되었을 뿐이다. 식민지 후기로 갈수록 여성은 다양한 공업부문에 고용되어가지만 전반적으로 방직, 화학, 식료품공업에 집중되어 있다. 식민말기에 가면 금속, 기계, 제재, 화학공업 등 중화학공업 등 남성중심인 업종에서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보다 세부업종에서 여성이 다수 고용되었던 것은 정미업, 직물업, 편조물업, 고무화제조업, 연초제조업, 통조림제조업 등이다. 정미업에서 여공은 수출용 쌀에서 모래나 불량품을 걸러내는 선미공으로 주로 고용되었다. 제사공업에서는 관리직 및 고치를 삶는 숙련과정은 3~4년 이상 일해온 남성직공이 담당하였고 그 외의 選繭, 繰絲, 揚返 등의 비숙련작업과 노동집약적 작업은 여성이 담당하였다. 고무화 제조업에서는 여성은 주로 고무화 성형공으로 고용되었다. 롤러부, 재단공, 가류공 등은 하루에 1인당 250족을 생산하는 반면 성형공은 1일 평균생산량이 30족에 불과했다. 이것은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과정은 남성이 담당하고 노동집약적인 부분은 여성이 담당하였음을 보여준다.(이정옥 1990) 더불어 공정간의 병목현상도 여성고용의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공정의 기계화는 기계화되지 못한 공정에서 대량의 노동수요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 부분이 여성이 노동하는 것이 가능한 영역이라면 남성보다는 임금이 저렴한 여성을 대량으로 고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면직물 및 비단 등의 직물제조와 연초제조업도 기계화되면서 다량의 여성을 고용하게 되는 업종에 해당한다. 요컨대 공장에서의 여성의 고용은 생산의 기계화 및 대량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분업의 고도화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Goldin(1982)는 이러한 여성을 고용하는 방향으로의 기술변화를 생산기술의 중성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방직공업과 연초공업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여성보다 남성의 고용이 더 많았다. 연초공업의 경우에는 1910년대초까지만 해도 5~6천명의 성인남성을 고용하던 가장 고용규모가 큰 산업이었다. 그러나 생산의 기계화와 더불어 여성과 유년남성의 고용이 증가하여갔다. 방직공업도 1910년대 중후반까지는 남성노동자의 수가 더 많았지만 1920년대부터 여성노동력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 Goldin(1982)은 19세기 미국에서 여성과 아동의 고용증가를 소수의 남성직공 중심의 작방생산이 여성과 아동 중심의 대규모 근대적 공업으로의 전환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식민지기의 공업생산의 변화를 19세기 초반 미국의 공업화과정에서의 변화와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일부에서 그와 유사한 형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남성중심의 소규모공장의 쇠퇴와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면제품생산에서 남성중심의 소공장에서 여성노동중심의 기계제대공업으로의 전환이 일어났고 신발산업에서도 가죽신과 구두를 생산하는 남성숙련공 중심의 공장에서 고무신을 생산하는 근대적 공장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3. 공장센서스 자료분석

3.1 자료소개 및 기술적 통계량

식민지기 개별 공장에 관한 정보는 많지 않다. 1907년부터 1915년 사이의 공장명부는 총독부통계연보에 수록되어있다. 그리고 1930~40년대에는 조선공장명부가 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이 두 가지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조선공장명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작아 개별공장들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미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 수록된 1915년 전국의 공장명부와 함께 각 지방에서 발간된 통계자료에 수록된 공장자료를 수집하여 1920년대 후반경의 공장센서스를 만들었다. 편의상 “1928년 공장명부”라고 부를 자료는 1927년의 『(忠淸北道)商工統計』, 1928년의 『(京畿道)商工統計』, 『(忠淸南道)商工統計』, 『朝鮮總督府慶尙北道統計年報』, 『平安北道統計年報』, 1929년 『(平安南道)産業統計書』로 구성되어 있다. 1928년도 공장명부는 주요공업지대의 하나인 경상남도를 결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나 그 외의 주요 공업지대인 경부선, 경의선 라인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1928년 조선의 총공장수는 5342개, 고용자수는 99547명이었는데 분석대상은 공장 3110개, 노동자 64063명에 해당해 60%가 조금 넘는다. 동 자료는 개별공장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종사업종, 공장명, 공장경영자, 공장주소, 자본금액수, 성별·민족별 고용자수, 영업일수, 원동기대수와 마력수 등)를 가지고 있다. 이 자료는 1920년대의 공업의 특징을 보여줌과 함께 이후의 공업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해방 후 남한의 여성고용의 특징을 보여주는 자료로 1953 년 『生産企業體名簿』를 추가하였다. 동자료는 1-9 명의 직공을 고용한 공장에 대한 정보가 이전에 비하여 부족하고 해방이후의 급격한 공업구조의 변화나 한국전쟁의 영향 등으로 연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해방이후의 남한의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여러모로 유용한 일이기에 채택하였다.

표 5 공장의 규모별 남녀 고용 추세

연도	1-9 인		10-29 인		30-99 인		100 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15	2047	29	4378	244	3374	851	9665	3591
		(1.40)		(5.28)		(20.14)		(27.09)
1928	9513	482	11338	1704	8553	3128	16616	12729
		(4.82)		(13.07)		(26.78)		(43.38)
1953	384	52	18845	10859	30259	26780	20662	35585
		(11.93)		(36.56)		(46.95)		(63.26)
방직	61	32	5840	9054	9103	18241	7758	24819
화학	55	10	1741	590	4128	3357	5070	6149
금속	35	0	2274	192	3237	429	511	51
기계	36	1	3027	145	4730	408	432	35
목제품	68	1	1078	65	545	184	250	274
인쇄	17	1	704	99	759	163	145	75
요업	6	4	819	109	2351	873	2201	843
식료품	58	2	1929	311	3188	929	2489	1869
기타	48	1	1433	294	2218	2196	1806	1470

주 : 괄호안의 숫자는 %, 각 규모의 공장노동자 중 여성노동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 1915 년은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8 년 공장명부는 본문에 설명, 1953 년은 『生産企業體名簿』

여성의 고용은 공장규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표 5 에 따르면 1-9 인 규모의 소공장에서의 여성고용은 전체 직공 중 1915 년에는 1%에 불과하고 1928 년까지 증가하였지만 그래도 5%정도에 불과하다. 10-29 인의 공장에서는 1915 년에서는 5%이지만 1928 년경에는 13%로 증가하였다. 30 인 이상 규모의 공장에서는 여성은 1915 년부터 2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였고 1928 년에는 27%, 43%에 달하게 된다. 1953 년에는 그 비중은 47%, 63%에 달한다. 따라서 규모가 큰 공장을 중심으로 여성의 고용이 확장되어 온 것을 알 수 있고 공장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전체 직공수에서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53 년의 공장센서스 자료를 그 이전시기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전 자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1953 년 자료는 남한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그리고 1928 년과 1953 년 사이에는 대공황,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해방, 한국전쟁이라는 격변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생산기술의 변화는 정치적, 경제적 격변에 의해서 중단되지않았다. 대공황은 비용절감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는 점과 전쟁은 남성노동력 공급의 부족문제를 가져와 여성의 고용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생산방식의 전환은 꾸준히 지속되어 1953 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1928 년과 1953 년을 비교해보면 10-99 인 사이의 규모의 공장의 여성의 고용비중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공장노동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여성을 주로 고용하는 공업, 특히 방직업의 팽창이 두드러졌기 때문이지만 전업종에 걸쳐서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였다.(표 4 의 1943 년과 비교) 특히 금속, 화학, 기계 등의 공업에서의 여성의 고용은 1930 년대 후반부터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추세는 1953 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한편으로는 이들 공업의 기술적 변화가 여성의 고용을 촉진한 면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받은 여성의 증가로 여성이 비숙련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숙련, 숙련분야로의 취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¹⁸

표 6 1928년 공장주 국적에 따른 동력활용 및 여성고용 현황

일본인공장		공장수			여성고용 공장수			고용된 여성수		
규모	동력	무동력	합계	동력	무동력	합계	동력	무동력	합계	
1~4 인	162	194	356	23	16	39	32	25	57	
5~9 인	198	285	483	45	38	83	137	91	228	
10~29 인	239	137	376	60	46	106	430	478	908	
30~99 인	99	44	143	50	15	65	1126	538	1664	
100 인 이상	60	8	68	45	3	48	8981	204	9185	
합계	758	668	1426	223	118	341	10706	1336	12042	

조선인공장		공장수			여성고용 공장수			고용된 여성수		
규모	동력	무동력	합계	동력	무동력	합계	동력	무동력	합계	
1~4 인	270	118	388	9	10	19	12	16	28	
5~9 인	306	433	739	19	46	65	67	102	169	

¹⁸ 일본에서도 1930-40 년대에 걸쳐 중화학공업 부문으로 여성의 진출이 증가하였다. 전시기의 노동력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었으나 일본여성의 학력증가도 기여하였다. 일본당국은 여성의 진출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였다.(中村政則 1985:23-28)

10~29 인	246	206	452	42	47	89	422	374	796
30~99 인	58	26	84	36	8	44	1270	194	1464
100 인 이상	20	1	21	19	1	20	3288	256	3544
합계	900	784	1684	125	112	237	5059	942	6001

자료 : 표 5 과동일.

표 6 은 1928 년 자료를 공장주의 국적에 따라 분류하여 동력사용 및 여성고용의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대규모 공장에 일본인공장이 많고 여성고용자체도 일본인 대공장에 편중되어 있지만 조선인공장도 동력이나 여성고용면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겪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15 년의 경성의 조선인공장 가운데 여성을 고용한 공장은 7 곳에 불과하였으나 1 차대전기에 급증하여 52 개소로 증가하였고 1928 년에는 61 개로 증가하였다. 전국의 숫자는 알 수 없지만 1911 년에 비하면 1928 년경에는 이미 상당한 수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20 년대 후반 시점에서 조선인공장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는 것은 정미업, 양말제조업, 고무신제조업 등 몇몇 업종에 국한되어 있으나 조선인공장의 대형화와 다양화는 1930 년대에 걸쳐 계속 진행되는 일이었다.(허수열 1993)

여성의 고용이 동력기계를 사용하는 공장에서만 증가한 것은 아니다. 동력기계는 기계운전을 보조할 비숙련노동력을 필요로하기도 하고 기계화되지 못한 공정을 담당할 대량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계화된 공정과 여성고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계화가 공정의 분할을 촉진하여 분업을 고도화시키고 각 공정의 작업을 단순화하는 경향을 강화시키는 점에서 기계화는 대량의 비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낳게 되는 것이다. 표 6 에 따르면 상당수의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공장에서도 여성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다. 동력기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노동분업을 통해 비숙련여성노동력을 고용함으로써 남성을 고용하는 것에 비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공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공장의 수도 작아지게 되고 생산공정의 분업이 고도화되어 여성을 고용하는 비중이 커지는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성을 고용하는 것은 여성의 특성에 맞게 노동규율이나 조직을 재편하여야 한다. 소규모공장에서 여성을 고용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재편의 비용이 크거나 작업이 장기간의 경험이나 숙련을 요하기 때문일 수 있다. 소규모 공장일수록 한 직공이 여러 가지 공정에 걸쳐서 작업을 해야할 것이고 직공들간의 교류나 협력도 중요시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장에서는 여성을 고용하지 않고 남성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여성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유년 남성 도제나 견습공 등을 고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도제나 견습공들은 숙련노동자가 되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하에 장시간의 저임금노동을 감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남성 유년노동자는 남성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식민지 후반까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1910 년대에 증가추세에서 1920 년대 감소추세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년 및 유년 여성에 비하여 유년남성노동자의 공장취업이 부진하였던 것은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비숙련노동에서 여성의 고용이 유년남성의 고용보다 비용이나 관리면에서 우월했던 것과 함께 공급자인 유년남성의 입장에서는 도제나 견습공을 통해 숙련공으로 성장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¹⁹ 성년이 되면 결혼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 취업했던 유년여성들과는 달리 유년남성은 차라리 진학을 통해 근대적 학문을 익혀 숙련직으로 진출을 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²⁰ 따라서 여성이 일하지 않던 업종이나 소규모 공장에서도 여성을 고용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것은 남녀의 수급 조건상 거스르기 어려운 시대적 변화라 할 수 있다.

3.2. 실증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민지기 여성의 고용은 1910-20 년대는 방직, 화학, 식료품 공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1940 년대 말에는 금속, 기계, 요업 등 전통적으로 여성이 소외되었던 부문에서도 고용이 증가하였다. 1953 년은 비록 남한의 자료이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추세의 연장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7 은 1915 년, 1928 년, 1953 년의 세 시점의 공장센서스 데이터를 여성의 고용비율 파악이 가능한 공장들의 각종 특성과 연결지어 회귀분석한 결과이다.²¹

1915 년 남부소재 662 개 공장 중 여성을 고용한 공장이 106 개, 직공 19998 명 중 여성이 4412 명이고 북부소재 공장은 118 개중 11 개, 직공 4181 명 중 303 명이 여성이었다. 1928 년 파악된 공장 3110 개 가운데 여성을 고용한 공장은 578 개소였고 이중 432 개소가 남부지역(전체 2344 개)에 위치하고 있고 고용된 여성의 수는 10942 명(전체 직공 42742 명)이었고 북부 지역에는 146 개(전체 766 개), 2313 명(전체 21311 명)이었다. 전국자료를 포괄하고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남부와 북부지역의 주요공업지대의 차이를 보여준다. 여성을 고용하는 공장의 상당수와

¹⁹ 식민지기 초반기 수공업의 부진은 도제나 견습, 전습공에서 숙련공으로의 성장하는 경로를 단절시켰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가족신을 만들었던 숙련공들은 가족신이 고무신에 의해 대체됨에 따라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가족신 제조업의 도제, 견습, 전습공도 숙련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잃어버린 것이 된다.

²⁰ 식민지기 남성의 보통학교 취학률은 1920 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여 1921 년 7.4%에서 1929 년 28.4%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여성의 취학율은 1.2%에서 6.1%로 증가하였다.(오성철 2000:133)

²¹ 본 모형의 기본적인 틀은 Goldin(1982)에서 참조하였다. Goldin 은 1800 년대 세 시점의 공장센서스 자료 분석을 통해 공장의 대형화(노동자수 측면)가 여성의 고용비율을 증가시키는 유의미한 변수였음을 보였다.

상당부분의 여성노동자가 남부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구밀집지역인 남부지역에 경공업이 소재하였다는 기존인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것은 유희 여성노동력의 고용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취업목적 이주반경은 훨씬 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1915 년 공장명부에 따르면 여성을 대규모로 고용하는 공업은 주로 정곡업, 제면업, 연초업이었다. 이들 공장들이 주로 남부에서 생산되는 쌀, 면화, 담배를 가공하는 공업으로 주로 남부지역의 도시와 수출항을 중심으로 분포하였다. 북부지역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1915-28 년 사이 가장 남부와 북부 지역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규모 직물, 및 제사, 견제품 공장이 남부지역에 위치하였다는 것이다.(표 3 참조) 반면 철강이나 제재 등의 자원근접성이 중요한 업종의 공장들은 북부지역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식민지기 후반에도 지속되어 1943 년의 공업노동자 370990 명(여성 89216 명) 가운데 남부에는 145355 명의 남성과 64914 명의 여성이 분포되어 있었다. 표 7 에서 인구밀도와 북부지역 더미변수가 1915 년과 달리 1928 년에 보다 뚜렷하게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은 지역간의 차이가 1910 년대보다 1920 년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용주가 일본인인 경우에 여성의 고용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생산기술 선택에서 의 차이를 반영한다. 1928 년 일본인공장의 직공 1 인당 자본금은 9348 원인데 비하여 조선인공장은 872 엔으로 10 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다.(『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8) 상대적으로 일본인공장이 자본재의 비중이 큰 반면에 조선인공장은 노동투입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인공장은 다수의 여성을 고용하는 대규모 근대적 공장 중심이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여성을 고용하는데 보다 망설임이 적었다면 조선인공장은 남성노동자 중심의 소규모 공장이 지배적인 다수였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경영자에 따른 여성고용의 차이는 이러한 이중구조의 산물이다.

원동기의 활용여부와 여성고용여부와의 관련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1915 년의 경우 유의수준 10%에서 의미있게 나타나고 있다. 1928 년 자료는 동력기관을 사용하는가의 여부는 여성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력기관을 마력수에 따라 나누어 회귀분석을 하면 소규모의 동력기관에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대규모 동력기관에서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이것은 기계력에 많이 의존하는 부문에서 여성의 고용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생산의 기계화가 여성의 고용을 촉진한다는 것을 지지한다.

표 7 제조업노동자의 여성비중(여직공수/전체직공수)을 공장특성에 대해 회귀분석

	1915	1928	1953
--	------	------	------

	(1)		(2)	
공장수	780		3110	3054
여성을 고용한 공장수	117		578	2157
절편	-0.208*** (-2.783)	-0.195*** (-10.082)	-0.097*** (-3.408)	0.054 (1.596)
로그(인구밀도)	0.005 (1.233)	0.007*** (4.152)	0.009*** (4.86)	
로그(고용자수)	0.065*** (10.512)	0.050*** (15.009)	0.035*** (9.244)	0.067*** (11.682)
일본인 더미		0.026*** (3.558)	0.047*** (6.509)	
북부지역 더미	-0.01 (-0.502)	-0.023*** (-2.852)	-0.013* (-1.664)	
			(마력)	-0.028***
			1~9	(-3.205)
원동기 더미	0.027* (1.795)	0.010 (1.507)	10~29	0.002 (0.111)
			30~	0.036** (1.991)
산업 더미				
직물	0.245*** (3.285)		0.24*** (9.679)	0.351*** (12.043)
정미	0.130* (1.801)		0.049** (2.198)	-0.214*** (-5.514)
화학	0.02 (0.199)		0.035 (1.205)	-0.015 (-0.463)
신발	0.009 (0.109)		-0.002 (-0.058)	0.21*** (5.711)
봉제	0.062 (0.614)		-0.018 (-0.676)	0.343*** (7.541)
요업	0.048 (0.659)		-0.018 (-0.782)	-0.082 (-2.266)
식료품 및 기호식품	0.047 (0.647)		-0.015 (-0.659)	-0.04 (-1.187)
기계류	-0.038 (-0.338)		-0.086*** (-2.737)	-0.212*** (-6.716)
인쇄	0.009 (0.118)		-0.089*** (-3.438)	-0.141*** (-3.437)
목제품	0.008 (0.097)		-0.086*** (-3.455)	-0.155*** (-4.162)
금속제품	0.000 (0.005)		-0.06*** (-2.676)	-0.178*** (-5.439)
기타	0.047 (0.629)		-0.029 (-1.166)	-0.151*** (-3.966)
조정된 상관계수	0.273	0.105	0.225	0.525

- 주 : 1) 절편은 1928 년의 (1)은 남부의 무동력 조선인공장이고 나머지는 남부의 무동력 조선인 제지 및 지제품업 공장.
 2) 1928 년도에서 평안남도는 1929 년 자료를, 충청북도는 1927 년 자료를 사용.
 3) 시군별 인구 자료는 1915 년은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서 1928 년은 『(昭和五年)朝鮮國勢調査報告』에서 가져옴. 면적은 『(昭和五年)朝鮮國勢調査報告』에 기재된 지역별 면적을 활용.
 4) 일본인 더미는 공장주의 국적에 따라 결정.
 5) 북부지역 더미는 평안남북도 소재의 공장을 의미.
 6) 산업분류는 1929 년 『朝鮮總督府統計年報』의 공업 업종구분을 사용함.
 7) * : 유의수준 10%, ** : 유의수준 5%, *** : 유의수준 1%
 자료 : 표 5 와 동일.

업종별로 나누어보면 1915 년에는 직물과 정미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1915 년에는 두 업종에 주로 여성이 고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28 년 무렵이면 업종간의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정곡업은 1928 년 자료까지 여성의 고용비중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지만 1953 년에서는 음의 값이 나타나고 있다. 정곡업은 1920 년에는 여공의 비율이 41%에 달하였으나 차츰 감소하여 1928 년경에는 21%로 감소하였다. 여공의 비율감소는 남성의 고용비율이 높은 중소규모 조선인 정미공장의 증가가 영향을 1 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²² 보다 근본적으로는 생산기술 변화에서 여공비율 감소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20 년대 중반 정미기계에서의 기술발전은 여공의 필요를 감소시켰다. 즉 기존에 정미업에서 여공은 주로 도정한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선미공으로 고용되었는데 최신의 선미기계가 들어옴으로써 여공의 필요성이 감소되었던 것이다.²³ 방직공장의 여성의 비율은 1911 년 19%에 불과하였으나 계속 증가하여 1930 년에는 74%에 달하였고²⁴ 이후에는 1935 년에는 73%, 1943 년에는 66%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²⁵ 1930 년대 방직공업의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여성의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1953 년에 여성의 비중은 69.6%로 1930 년대 추세의 연장에 있다.

신발산업과 봉제공업은 해방 이후에 여성의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추세가 나타난다. 신발공업은 1910 년대에는 대부분 경제화 등의 가죽신과 구두를 생산하는 수공업형태의 공장이었고 직공은 대부분 남성이었다. 그러나 1920 년대 고무신을 생산하는 근대적 공장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28 년경은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발산업에서 여성고용의 비중이 뚜렷한

²² 조선인 정곡업 공장은 1920 년 219 개, 고용인 남 2048 명, 여 161 명에서 1928 년 1241 개, 고용인 남 9472 명, 여 1279 명으로 증가하였다. 여공의 비율이 7.3%에서 11.9%로 증가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동기간 일본인공장의 여공비율은 50.7%에서 30.5%로 감소하였다.

²³ 조선일보, 1925 년 3 월 17 일, '실직여공근오백, 던기기계설비로인하여 직업을일흔남포선미공...'

²⁴ 村相はつ(1983)에 따르면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산업화초기 방직산업 종사자의 주류는 여성보다는 남성이었다. 근대적 대공업화과정에서 여성이 방직노동자의 주류가 되어갔다.

²⁵ 공정분할에 따른 분업확대와 달리 공정을 통합하는 자동화에서는 비숙련공, 여공의 필요성이 감소된다. 작업속도의 증대 및 1 인당 직기 대수의 증가 등은 여성보다 남성의 고용비중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佐野陽子 1972:198-209)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53년에는 고무화 제조공장만이 남아있었다. 1953년 자료가 10인 미만의 공장의 자료는 빈약하기 때문에 소규모 수공업적 생산의 쇠퇴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신발공업의 주류가 수공업적 작방에서 근대적 대기업으로의 전환을 겪었음은 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고용비중이 증가하였다. 봉제공업은 1915년에는 직공 105명 중 단 3명만 여공이었다. 1928년에는 중대규모 공장에서도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여 1685명 가운데 256명이 여성이었다. 1953년에는 3648명 가운데 2540명으로 증가하였다.

경공업에서 여성고용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졌던 반면에 중화학공업에서는 여성의 고용비중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10년부터 1930년까지 전체고용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1930년 이후 전체산업에서 여성의 고용비중은 소폭 감소내지 정체하였던 것은 비숙련노동력을 절감하는 기술의 도입과 함께 중화학공업 부문의 성장 때문이었다.(표 4) 이들 부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여성이 비중이 작기는 하지만 1930년대 후반부터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업종별의 산업특성 및 기술적 변화에 따라 여성의 고용비중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체적인 경향은 동일 업종내의 여성을 고용하기 시작한 공장이나 여성의 고용비중이 대체로 증가경향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고용의 업종별 차이를 제외하였을 때에도 원동기의 활용이나 공장의 규모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동기의 활용은 남성의 힘을 대체하고 공장규모의 대형화는 분업을 고도화시킴으로써 다수의 비숙련 저임금 노동의 필요를 만들어냈다. 숙련공의 비숙련공으로의 대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근대적 교육을 받은 새로운 형태의 숙련공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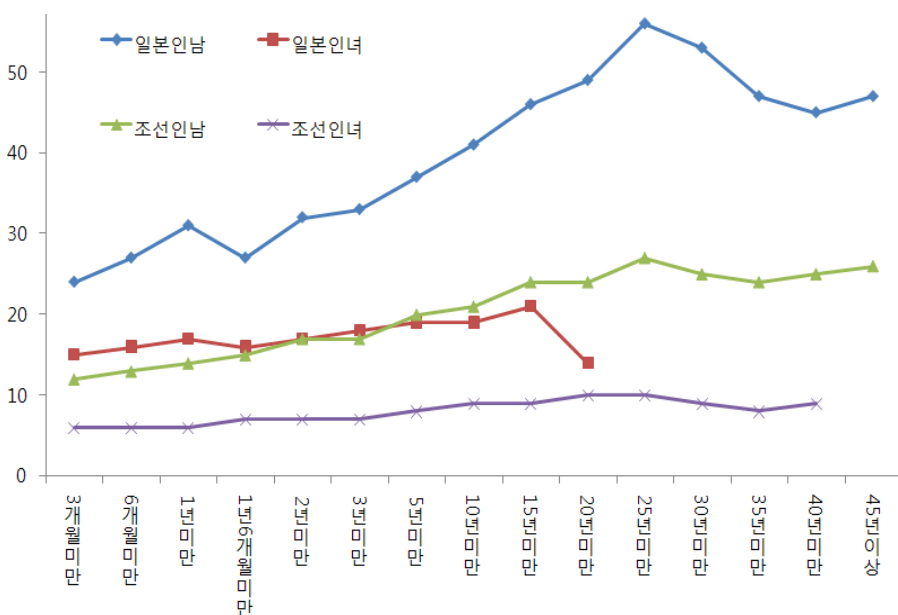
4. 남녀임금격차

앞에서 살펴본 여성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생산기술의 변화는 남녀임금격차를 감소시키리라 기대된다.²⁶ 육체적 힘과 전통적 숙련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남성이 여성에 대하여 가졌던 비교우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20세기 전반기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는 생산기술변화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일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식민지기 남녀의 임금격차문제는 주로 특정 시점에 대해서 민족 및 성에 따른 구조적 차별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활용되어왔다. 이우연, 차명수(2007)는

²⁶ Goldin(1982)에 따르면 미국의 New England 지방의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은 생산기술의 변화와 함께 1820년 37.1%에서 1850년 43.7%로까지 증가하였다. Middle Atlantic에서는 1820년 30.3%에서 1850년 52.4%로 증가하였다.

식민지기 농업노동자와 가사노동자의 임금자료를 활용하여 비숙련 여성과 남성노동자의 임금격차 문제를 장기시계열로 다루었다. 그에 따르면 식민지기 남녀의 임금격차는 경공업의 발전에 따라 남부지역에서는 줄어든 반면에 북부지역에서는 중화학공업의 발달로 오히려 임금격차가 벌어졌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논지의 뒤를 이어 남녀 공장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공업노동자의 임금자료 및 공장명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해보겠다.

그림 2 1942년 경력, 민족, 성별에 따른 임금(시간당, 錢)



자료 :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查結課報告』

먼저 1942년 제조업노동자들의 민족별, 성별, 경력별 임금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림 2를 통해 식민지기의 임금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 그림 2는 전체 업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개별업종별로도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식민지기의 임금구조가 민족과 성의 이중적 차별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왔다.(정진성 1988. 이정옥 1991 참조) 그림 2는 경력에 따라 그러한 이중적 차별구조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보여준다.²⁷ 먼저 일본인 남성 직공의 경우 취업초기에도 가장 많은 임금을 받지만 경력이 증가함에 따른 임금의

²⁷ 물론 이를 순수한 민족이나 성에 따른 차별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민족이나 성에 따라 평균교육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선인 남녀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의 차이도 남녀차별에서 기인한 면이 있겠으나 민족간의 차이에 있어서 교육수준의 차이의 전체가 민족차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는 없다. 민족간의 소득수준의 차이, 교육관의 차이가 교육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승속도도 가장 빠르다. 가장 아래에 있는 조선인 여성은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속도가 가장 느리다. 특히 10년 이상의 경력자층은 소수이다. 여성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어리고 경력이 짧고 경력증가에 따른 보상도 낮은 처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 여성의 경우는 조선인 여성에 비하여 임금은 전반적으로 높지만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속도는 조선인여성의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에 조선인남성의 경우 경력 5년정도까지는 일본인 여성보다 평균임금이 낮지만 임금상승속도는 일본인 여성보다 빨라서 5년 이상이 되면 일본인 여성의 임금보다 높아진다. 경력이 쌓이게 됨에 따라 조선인 남성이 얻을 수 있는 숙련의 증가나 승진의 기회가 일본인 여성에 비하여는 많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임금구조는 평균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가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은 숙련도의 증가에 따른 보상, 승진 등의 신분변화에 따른 임금상승 등을 의미한다. 여성들의 경우 이러한 기회가 남성에 비하여 상당한 제약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43년 정액임금을 받는 조선인 여성노동자가운데 경력 5년 미만의 노동자의 비중은 98%에 달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수년간을 취업한 후 가정으로 회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서 기인하는 특징이다. 조선인남성은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숙련의 증가나 승진의 기회가 일본인 남성에 비해서는 적지만 일본인 여성이나 조선인 여성에 비해서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인남성은 전시기 이래로 일본인 남성노동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더 많은 기회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였다. 업종에 따라서 여성의 임금증가속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특히 타업종에 비하여 평균임금이 낮기는 하지만 여성노동력이 많은 방직에서 경력증가에 따른 여성임금의 증가속도는 타업종에 비하여 빠른 편이다. 즉 남성에 비하여 경력에 따른 임금증가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여성의 경우도 경력증가에 따라, 특히 3년 이상의 여성의 경우 평균임금 증가속도가 그 이전보다 빨라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반숙련 혹은 비숙련직일지라도 여성노동력의 기능적 능력이 향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8 조선인 남녀 직공의 임금비율(여성직공임금/남성직공임금)의 변화

연도	성인공						유년공				
	일당(50인 이상)			시간당(50인 이상)			남부				
	남	여	여/남	남	여	여/남	남	여	여/남		
1921년 6월	99.1	61.2	0.62						45.1	40.6	0.90
1921년 9월	103	67.9	0.66						45.9	39.9	0.87
1922년 6월	105	61	0.59						48.5	40.4	0.83
1922년 9월	97.5	63.1	0.65						44.5	48.0	1.08
1922년 12월	106	60.4	0.57						44.0	43.9	0.99
1923년 9월	102	72	0.71						48.9	49.2	1.01

1929년	98.6	61.7	0.62	10.1	5.8	0.58	(일당)	45.1	41.4	0.92
1931년	93.5	56.3	0.60	9.7	5.3	0.55	95	46	0.49	35.3 30.6 0.87
1933년	92	50	0.54	9.2	4.7	0.51		46	28	0.61
1935년	90	49	0.54	8.6	4.5	0.52		49	30	0.61
1937년	96	51	0.53	9.7	4.8	0.50		43.8	31.3	0.71
1939년	110	55	0.50	11.2	5.2	0.47		50	41	0.82

(시간당)

1943년			21.0	9.9	0.47			9.2	7.0	0.76
-------	--	--	------	-----	------	--	--	-----	-----	------

(시간당)

1947년 8월							성인+ 유년	18.3	14	0.76
----------	--	--	--	--	--	--	--------	------	----	------

1962년 8월								14.4	9.3	0.64
----------	--	--	--	--	--	--	--	------	-----	------

주 : 1) 1931년 남부의 임금은 10인 이상의 사업체의 임금.

2) 1931년 남부의 남녀임금 계산시 남녀유년공은 모두 조선인으로 간주함.

3) 1943년 임금은 30인 이상의 공업사업체의 노동자임금.

4) 이텔릭체는 고용자수 가중평균.

자료 : 1921년 6월과 9월, 1922년 9월과 12월, 1923년 9월은 『官報』, 1922년 6월은 『朝鮮經濟雜誌』 1929년부터 1939년까지 『朝鮮總督府調査月報』, 1943년은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結果報告』, 1947년은 『南朝鮮勞動統計調査結果報告』, 남부지역 1931년은 『工場及鑛山に於ける勞動狀況調査』, 1962년은 『事業場勞動實態調査報告書』.

이제 식민지기 전체에 걸친 남녀임금격차의 변화를 살펴보자. 남녀 공장노동자의 임금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1910년대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아있는 자료를 정리해보면 대체로 1920년대 초부터 공장노동자의 남녀임금격차를 알 수 있다. 1920년부터라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식민지기 남녀의 임금격차는 줄어들기보다는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년과 성인공 모두에서 나타난다. 먼저 유년노동자에 대해서 간략히 펴보자. 유년노동자의 남녀임금격차는 1920년대 초에는 크지 않았다. 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의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도 존재한다. 유년노동자의 남녀임금격차가 크지 않은 것은 노동력수급상황과 관련이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유년 남성노동자의 공장취업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1920년대 초반 다수의 유년공을 고용한 업종은 연초업, 제사업, 정미업이었다. 그러나 생산기술변화와 함께 연초업과 정미업의 유년공의 고용은 줄어들어갔고 제사업에서의 유년여성고용만이 증가해갔다. 조선인 유년남성에 대한 고용은 1930년대 후반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시점에 가서야 활발하게 증가한다. 여성의 경우도 제사업을 제외하면 유년여공의 고용은 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사업을 중심으로 유년여성의 고용은 꾸준히 확대되었고 1930년대 후반 유년여성의 고용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유년공의 성별임금격차는 1930년대 초반 확대되었으나 30년대 후반이 되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난다. 반면의 성인공의 남녀임금격차는 계속 벌어졌고 해방직전까지 줄어들지 않았다.

1920년대 초 조선인 성인여성의 임금은 조선인 성인남성에 대하여 대체로 60%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일본인을 포함할 경우 조선인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48%가량에 해당한다. 성인남녀의 임금격차는 193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다. 남녀의 임금격차가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경력효과와 함께 노동력수급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20년대 여성의 고용이 더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임금격차가 수렴하지 않고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여성의 노동력공급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20년대에 들어서면 전국 각지역에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서게 된다. 그 결과 농촌지역출신의 여성의 고용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남녀모두 임금이 하락하다가 193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지만 1943년 성인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47%에 불과할 정도로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표 9에 따르면 특히 1935년 이후 중화학공업의 성장에 따라 성인남성노동자의 고용이 1935년 12만명에서 1940년 20만명으로 증가한 반면에 성인여성의 고용은 4만명에서 6만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9 남녀임금을 1928년 공장명부의 개별공장특성에 회귀분석

	남성 임금 Sample : 168	여성 임금 Sample : 118	여성/ 남성 Sample : 118
절편	0.964*** (6.87)	0.504*** (5.234)	0.625*** (5.647)
로그(인구밀도)	0.04*** (3.985)	0.026*** (3.706)	0.011 (1.31)
로그(고용자수)	-0.01 (-0.478)	0.018 (1.296)	-0.002 (-0.119)
일본인 더미	-0.022 (-0.598)	-0.056*** (-2.488)	-0.07*** (-2.74)
북부 더미	-0.169*** (-4.7)	0.01 (0.416)	0.069*** (2.595)
월동기 더미(마력 1~9)	0.161*** (2.869)	-0.077* (-1.719)	-0.139*** (-2.708)
(마력 10~29)	-0.009 (-0.153)	-0.092* (-1.978)	-0.029 (-0.542)
(마력 30~)	-0.122** (-2.192)	-0.147*** (-3.353)	-0.055 (-1.094)
여성 비율	-0.12** (-2.038)	-0.102*** (-2.743)	0.009 (0.213)
산업 더미			

방직	-0.27*** (-5.862)	-0.001 (-0.02)	0.137*** (4.234)
식료품 및 기호식품	-0.154*** (-3.866)	-0.083** (-2.017)	0.112*** (2.367)
중화학	0.37*** (6.322)		
Adjusted R-squared	0.553769	0.245788	0.286352

주 : 1. 남녀 임금은 『朝鮮總督府調査月報』의 1929년 50인 이상 공장의 업종별 조선인 남녀의 시간당 임금을 10시간 노동으로 환산하여 사용.
 2. 남성임금의 분석 공장은 1928년 샘플 가운데 직공 50인 이상의 공장 중 남성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 중 업종분류의 임금을 찾을 수 있는 공장 168개소, 여성임금은 동 샘플 중 50인 이상의 공장 중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 중 업종분류의 임금을 찾을 수 있는 공장 118개소.
 3. * : 유의수준 10%, ** : 유의수준 5%, *** : 유의수준 1%

표 9는 1928년 공장명부 가운데 50인 이상의 공장을 추려내어 1929년 50인 이상을 고용한 공장의 임금조사 자료와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결과에 따르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남녀 모두의 임금이 높은 경향이 있으나 남녀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고용자수 자체만으로는 임금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주가 일본인인 경우 여성의 임금이 낮아져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일본인고용주들이 농촌의 저임금 여성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인고용주의 경우 양말이나 고무공업 등 반숙련여성을 활용하는 업종이 많았는데 이들 직종의 여성임금은 높은 편에 속한다. 동력기관의 경우 대규모 동력기계를 사용할수록 남녀의 임금을 모두 줄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기계화가 전반적으로 숙련을 해체하고 노동을 비숙련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소규모 동력기관의 활용은 남성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소규모 동력기계의 활용은 남성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앞의 표 7에서 1928년의 경우 소규모 동력화는 남성노동력의 고용비중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생산성의 향상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남성노동자의 고용을 가능케 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고용비율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의 임금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의 고용비율이 높다는 것은 비숙련노동의 비중이 높고 남성노동력을 여성노동력으로 대체하기가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남성노동자의 임금 또한 낮다고 할 수 있다. 업종별로는 중화학공업이 남성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고 방직, 식료품 및 기호식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성노동자의 임금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북부지역의 남성노동자의 임금이 남부지역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표 9의 북부지역 더미에 따르면 1920년대 후반 북부지역의 남성노동자의 임금이 남부지역

노동자의 임금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는 1931 년에도 마찬가지여서 남부지역의 조선인 성인남공의 임금은 95.1 전인데 비하여 북부지역은 80 전에 불과하였다. 유년남공의 임금은 남부 31.1 전, 북부 33.7 전으로 북부지역이 더 높고 성년여성(남 46.3 전, 북 48.6 전)이나 유년여성(남 30.7 전, 북 32.8 전)의 임금도 북부가 더 높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희박한 북부지역에 비하여 남부지역 조선인 남성노동자의 임금이 더 높은 것은 숙련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비숙련직의 경우 희박한 북부지역 노동자의 임금이 더 높지만 숙련직 노동자가 남부지역에 더 분포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임금수준은 남부지역의 노동자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²⁸ 남성에게 고임금을 지급하는 기계, 금속, 인쇄, 재봉 등의 업종들이 1920 년대까지는 주로 남부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비자와 풍부한 노동력이 있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공업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1930 년대 북부지역의 중화학공업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북부지역노동자의 임금이 남부지역에 비하여 보다 더 상승하게 된다.²⁹

표 10 업종별 조선인 성인 남녀의 임금비율(여성임금/남성임금)

	1921	1922	1924	1926	1928	1929	1931	1932	1933	1936	1937	1939
양말	-	-	-	-	-	0.92	0.99	1.06	0.95	0.95	0.90	0.80
고무	-	-	-	-	-	0.80	0.87	0.83	0.83	0.78	0.82	0.80
제사	0.60	0.69	0.78	0.80	0.79	0.80	0.76	0.64	0.68	0.80	0.71	0.65
직물	0.71	0.55	0.52	0.38	0.71	0.70	0.53	0.76	0.54	0.53	0.65	-
연초제조	0.71	0.74	0.75	0.66	0.69	0.63	0.52	0.53	-	0.46	0.57	0.57
요업	0.52	0.53	0.45	0.26	0.49	0.68	0.56	-	0.51	-	0.44	0.53
정미업	0.56	0.51	0.54	0.59	0.57	0.54	0.56	0.65	0.51	0.51	0.51	0.52
인촌	0.51	0.54	0.59	0.62	0.59	0.73	0.53	0.55	0.48	0.38	0.51	0.56
제혁	-	-	0.56	0.64	0.51	0.57	0.50	0.42	0.45	0.67	0.67	0.59
인쇄	0.54	0.46	0.47	0.60	0.46	0.46	0.49	0.49	0.46	0.42	0.40	0.58
비료	-	-	-	-	-	-	0.38	-	0.53	0.48	0.58	0.58
주물철공	-	-	-	-	-	-	-	0.34	0.47	0.43	0.40	0.47
정련	-	-	-	-	-	-	-	0.28	0.27	0.44	0.48	0.44
기계기구	-	-	-	-	-	-	-	-	-	-	-	0.41

주 : 1) 1921,22,24 년은 3,6,9,12 월 임금을 평균한 것.

자료 : 1921 년-1928 년, 1936 년은 『朝鮮の商工業』, 나머지는 『朝鮮總督府調査月報』.

²⁸ 이우연, 차명수(2007)의 그림 1 과 3 에 따르면 비숙련직과 숙련직의 남북의 실질임금은 대체로 북부지역이 높은 편이다.

²⁹ 1943 년 북부지역 노동자 1 인당 1 개월 평균임금은 56.9 원, 남부지역 노동자 임금은 43.3 원이었다.(『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結課報告』)

표 10 을 통해 업종별 임금격차의 변화추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남녀의 임금비율은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다. 여성이 반숙련공직을 담당하고 있거나 여성노동력 중심인 양말, 고무, 제사 등의 업종에서는 남녀의 임금격차가 작은 반면에 남성노동력 중심이거나 여성의 일이 단순노동에 머물러 있는 요업, 정미, 제혁, 인쇄, 기타 중화학공업에서는 남녀의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특히 중화학공업 초기인 1930 년대 초에는 중화학공업분야의 여성임금은 남성의 1/3 에 불과하다. 중화학공업에서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의 임금격차도 줄어들게 된다.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양말, 제사, 성냥 등 몇몇 업종에서는 1930 년대 초반까지 남녀임금격차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1930 년대 초반에는 전업종에 걸쳐서 남녀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 뚜렷이 관찰된다. 여성임금의 상대적 하락의 배경에는 대공황으로 인한 충격이 존재하였다. 이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여성임금에 보다 큰 충격을 주었는지 살펴보자.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농촌에서 취업목적으로 도시로의 여성노동력의 대이동은 1920 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1930 년대 초에 본격화됨을 볼 수 있다.³⁰ 이러한 배경으로 당시에 지목되고 있는 것은 공황에 따른 생활난이다. 공황에 따라 미가와 직물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서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가계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고용상태에 있던 여성이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직물가격의 폭락은 가내직포의 포기를 가져오고 이는 구직여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노동시장에 공급충격이 큰 컸던 또 하나의 요인은 수요측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930 년대 중반 일본의 대규모 방직공장이 조선에 진출하기 이전에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1920 년대 말 이래 정체상태였다. 조선인 남성 공업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북부지역의 개발수요에 따라 광부와 토건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³¹ 즉 남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불황의 충격이 분산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여성노동자는 충격이 보다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31 년 일본이 금본위제에서 이탈한 이래로 물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미가와 섬유제품의 가격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가 대공황의 충격으로부터

³⁰ (동아, 조선, 중외일보) 1928 년, 편창제사여공 30 여명모집, 함북 단천, 모집종사자가 어려워하여 사무원 박가가 와서 해결/ 1931 년 동양제사주식회사, 진해, 진해공장의 이십명 여직공모집에 수백명이 지원, 공황에 따른 생활난 지목, 1932 년, 군산, 고무상회, 여공 30 명 내외채용, 400 여명이 와서 채용해달라 애원/ 1932 년, 40 여명 모집에 지원 300 여명, 문경, / 1933 년, 조질하조계 여공 100 여명모집, 이 소문을 듣고, 1 천여명이 응모/ 1933 년, 평양, 여직공 10 명 모집에 2 백 70 여명의 응모자가 쇄도, 여공구직전선혼란/ 1934 년, 진해제사공장 50 여명 모집에 300 여명 지원, 동구밖을 나서지 못하는 처녀 등등

³¹ 堀和生(1995: 116)에 따르면 광부의 수는 1930 년 말 31 천명에서 1936 년 140 천명으로 증가하였고 토건노동자는 1933 년 44 천명에서 1936 년 118 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어느정도 안정을 찾게 되고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방직공장들이 조선에 진출함에 따라 여성에 대한 고용이 증가하였다. 1930년대 중반이 되면 이제는 여성노동력의 부족을 호소하는 기사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³² 남녀의 임금격차는 193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제사, 연초, 성냥, 인쇄, 제혁 그리고 중화학공업 등에서 좁혀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표 8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조업 전체에 있어서 남녀의 임금격차는 해방직전까지 좁혀지지 않았다. 이것은 1930년대 후반이래로 북부지역의 각종 개발수요와 중화학공업의 성장에 따라 남성노동력의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표 11 1943년과 1947년 업종별 남녀임금비율

	1943년 조선인 임금					1947년				
	노동자수		시간당 평균임금			노동자수		시간당 평균임금		
	남	여	남	여	여/남	남	여	남	여	여/남
금속	29876	1342	20.5	10.5	0.51	7722	226	19.6	13.1	0.67
기계기구	25174	1015	21.6	9.6	0.44	17717	469	19.0	13.4	0.70
화학	30097	9125	19.2	10.0	0.52	13961	4949	19.4	14.6	0.75
가스·전기·수도	4852	88	19.0	13.0	0.68	7091	641	16.9	14.6	0.87
요업·토석	15154	2787	20.7	11.2	0.54	6812	652	18.2	11.6	0.64
방직	14002	41128	13.5	7.8	0.57	13568	27935	18.5	14.2	0.77
제재·목제품	7966	1072	18.4	8.0	0.44	9588	144	18.4	12.1	0.66
식료품	6497	2913	16.9	8.0	0.47	13185	2925	16.1	13.7	0.85
인쇄제본	3629	358	20.0	11.0	0.55	4567	513	18.2	14.4	0.79
기타	4176	3937	19.9	8.0	0.40	4818	1601	18.8	12.0	0.64
총수	141423	63765	19.7	8.8	0.45	99029	40055	18.3	14.1	0.77

자료 : 1943년은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查結果報告』, 1947년은 『南朝鮮勞動統計調查結果報告』.

표 11은 1943년과 1947년 업종별 남녀의 임금자료이다. 1943년은 한반도 전체가 대상이고 1947년은 남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표 8에 따르면 1931년 남부지역의 여성임금은 남성의 49% 정도이다. 1930년대에 남부지역의 제조업노동자의 남녀임금격차는 어떻게 변했을까? 북부지역의 개발수요에 따라 남부 남성노동자의 상당수가 북부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1930년대 후반이 되면 노동력의 부족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다. 조선인노동자의 경우 만주와 일본에서

³² (동아일보) 1935년, 여공부족은 全鮮적, 괴로운 섬유공업계, 모집난과 소질열악

조선인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토목사업 증가와 중화학공업의 성장에 따라 노동력수요가 팽창하였다.³³ 잠재적 노동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으나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노동력, 특히 기술인력의 부족은 현저하였다. 이렇게 비숙련노동자에 비하여 숙련, 반숙련 노동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도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된 것이다.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식민지말기까지 증가하였고 임금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어갔다. 노동시장이 더 이상 시장의 수급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필요노동력의 조달도 강제동원의 형태로 변질되어갔다. 이러한 통제와 강제는 남성노동자보다 여성노동자에게 보다 더 집중되었다. 여성노동력이 노동시장을 통해서 조달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식민지기 공업의 이러한 구조적 특질은 해방과 더불어 해소되었다. 첫째, 공업생산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고 여성임금이 높은 방직 및 식료품공업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방직공업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유년여성 고용산업이었던 제사공업은 해방과 더불어 해체되었다. 저임금으로 유년여성노동력을 고용하던 기업이 철수했고 상당수의 유년여성들은 가정으로 돌아갔다. 1943년 남부지역의 여성노동자수는 65천명이었으나 1947년에는 4만명이었다. 1943년 유년여공이 전체여공의 절반가량이었음을 고려하면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그대로 남은 것 또한 알 수 있다. 남성 노동시장은 해방과 더불어 보다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북부지역 개발수요의 중단, 대규모 해외인구의 유입, 남성고용 산업의 후퇴 등으로 남성노동자는 공급증가, 수요감소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표 8에서 1947년 남부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76%에 달하였다. 해방은 남녀간의 임금격차도 급격히 수렴시켰다. 1962년경 제조업 여공의 임금은 남공임금의 64%이므로 해방을 전후로 한 이러한 급격한 임금수렴은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현상이었으나 수렴의 효과는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31년 남부지역의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49%가량이었다. 1930년대에서 해방 직전까지 임금격차는 생산기술의 변화가 가져오리라 기대되는 임금수렴효과보다는 임금격차를 증가시켜왔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서의 경제정책이 남녀 노동시장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남녀노동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은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경제정책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남부지역의 남녀임금격차는 급속히 축소될 수 있었던 것이다.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임금격차의 해소는 전산업에서 나타났다. 방직, 식료품, 화학산업에서 남녀의 임금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³³ 동아일보, 1937년 10월 13일, ‘勞動力 恐慌時代 現在에만 二萬名不足 技術養成이緊急’

가장 많은 여성이 고용되어있는 방직분야에서 여성임금은 1943 년 남성의 57%정도에서 1947 년 77%로 증가하였다.

표 12 남녀직공의 연령구조의 변화

	1921 년	1943 년		(남한)	1953 년	1958 년
	남성	왼쪽기준	오른쪽기준		남성	여성
10 세미만	12	327				
10-11 세	164		3344	13 세이하	225	182
12-14 세	1800	8321				
15-19 세	6099	46063	42035	14-18 세	5263	5603
20-29 세	13426	60050	96323	19-40 세	36690	59338
30-49 세	11067	35765				
50-59 세	558	3735	12559	41-60 세	12322	12893
60 세이상	34	585	585	61 세 이상	561	130
합계	33160	154846	154846		57,014	80,104
<hr/>						
10 세미만	5	1531				
10-11 세	125		11731	13 세이하	167	312
12-14 세	2237	20280				
15-19 세	2749	30066	38053	14-18 세	10491	10963
20-29 세	3026	8171	14398	19-40 세	32737	44487
30-49 세	1517	5526				
50-59 세	98	608	2000	41-60 세	2884	1970
60 세이상	6	98	98	61 세 이상	105	3
합계	9763	66280	66280	합계	46384	57735

주 : 1943 년은 노동자 30 인 이상을 고용한 공장.

표 12 는 1920 년부터 1958 년까지 직공들의 연령구조를 개관한 표이다. 1943 년 남성의 경우 15-19 세가 46 천명이지만 19-40 세는 96 천명으로 상당수가 성인 내지 기혼남성일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청장년층에는 다년간의 노동경험과 관리직의 경험을 가진 노동자들이 분포하고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우 12-14 세의 여성이 20 천명, 15-19 세의 여성이 30 천명으로 20 세

이상은 15 천명 가량이었다. 여성은 대부분이 미성년 미혼여성이었던 것이다. 저연령 여성들이 대부분 남부지역의 방직공장에 취업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 직공의 연령구성은 크게 변하게 된다. 1943 년과 1953 년을 비교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미성년자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13 세 이하의 노동자의 경우 남녀 모두 1-2 백명수준으로 급감하였다. 14-18 세의 노동자의 수도 크게 줄어들었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해방전에는 12-19 세의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다면 해방후에는 19-40 세의 노동자가 핵심노동력임을 알 수 있다. 여성노동력은 이제 유년기 한시적 노동력 제공자가 아니라 도시지역 제조업의 핵심적 노동자로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1953 년과 1958 년을 비교해보면 이제 여성노동력은 14-18 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해 그 후에도 상당기간을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후 고도성장 과정에서 여성노동력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역사적 뿌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역사적 경험의 축적물임을 알 수 있다. 1943 년 식민지기 다년간의 노동경험을 가진 12-29 세의 여성노동력이 10 년이 지난 1953 년에는 19-40 세의 노동력으로써 전체 여성노동력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남성노동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생산기술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체득한 노동력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축적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고도성장 이전에 축적되어 있었던 것이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노동력의 상당수는 인적 네트워크(연고에 따른 고용)에 따라 이동한다. 고도성장기 노동력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로 노동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축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VI. 맺음말

이상으로 1900 년부터 한국의 고도성장 직전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에서의 기술변화와 여성고용증가와와의 관계, 그리고 기술변화가 남녀임금격차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남녀노동자의 질적차이가 존재하고 그것이 고용과 임금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통적 관습의 보다 강한 제약하에 있던 여성, 특히 기혼여성은 가사노동과 출산, 육아의 문제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요하는 공장에 취업하기가 곤란하였다. 반면에 미혼여성은 그러한 전통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웠으나 그것은 결혼하기 전 한정된 기간에 그칠 뿐이었다. 전통적 차별과 함께 여성노동력의 이러한 특성은 여성노동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했다. 서구의 생산기술(특히 동력기계의 활용과 분업의 고도화를 통한 대규모 생산방식)의 도입에 따라 여성노동력은 근대적 공업화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지만 여성노동력에 대한 전통적 제약은 온존되었던 것이다.

식민지기 생산기술의 변화는 산업전반에 걸쳐서 깊숙이 침투하였다. 동력기계의 활용과 여성의 고용은 제조업전반의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고용은 기계화된 대규모 생산방식의 도입과 함께 본격화되었지만 그러한 공장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었다. 남성노동자 중심의 소규모 공장에서도 여성을 고용하는 공장이나 여성의 고용비중이 증가해갔고 동력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공장에서도 여성은 고용되었다. 차츰 가정밖의 여성의 공업활동 종사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사회현상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이 결혼하기 전 단기간에 그침에 따라 여성들이 숙련공이 되거나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제약되었다. 여성에 대한 전통적 차별과 함께 여성고용의 이러한 특성은 대부분의 여성을 단순비숙련직에 머무르게 하였다. 여성들은 기계화하기 어렵지만 많은 힘을 요하지는 않는 공정이나 섬세한 손놀림과 인내심을 요하는 작업에 배치되었다.

1910 년대에는 경성과 부산과 같은 주요 대도시에서 근대적 대공업이 성장하여 주로 도시의 유희노동력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1910 년대 말부터 근대적 대공장이 내륙지역으로 확산되어 1920 년대에는 제사, 연초, 고무공업 등이 전국각지에서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제 여성노동시장은 각지의 대도시가 배후농촌지역의 유희여성노동력을 흡수하는 형태로 형성되어갔다. 1930 년대초 대공황이 가한 충격은 남성노동자보다 여성노동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었다. 농가경제의 피폐로 노동공급은 증가하였지만 제조업의 부진으로 수요는 크게 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광산노동자나 토목노동자로 일하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어 남녀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1930 년대 중반 노동시장은 안정을 찾지만 일체의 중화학공업 중심의 한반도 북부개발은 남성노동자의 임금을 높였고 노동시장의 미발달로 대다수가 억압적인 노동계약으로 고용되던 미성년자들이었던 여성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였다.

긍정적인 변화라면 여성의 생활공간이 가정을 넘어 사회로, 도시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부 업종이기는 하지만 생산의 자동화가 진행되어 고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도 열렸다. 결혼적령기 여성의 가정으로의 회귀는 지속되었지만 여성의 결혼연령은 차츰 늦춰져갔고 여성노동자들에서도 숙련이나 반숙련직에 진출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1930 년대 후반에는 중화학공업분야의 여성진출도 활발해졌다. 특히 해방은 남녀임금의 격차를 급속도로 축소시켰다. 해방과 일본인의 철수는 남성노동력에 대한 초과수요와 억압적 노동시장구조의 해소를 의미했다. 남부의 산업은 경공업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수많은 여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보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머물렀다.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다년간의 노동경험을 가진 노동력이 해방이라는 색다른 공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비단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변화와 노동력 수급의 변화를 중심으로 식민지기와 1950년대까지의 공장노동자의 남녀의 고용비율 및 임금격차 문제에 접근해보았다. 이러한 변화는 대략 10만내외의 제조업노동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전히 대부분의 여성은 농촌지역에 남아있었고 수십만, 수백만명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변화는 1960년대 이후의 본격적인 공업화과정에서 나타난다. 20세기 전반기의 제조업의 생산기술의 변화와 노동조직의 변화는 20세기 후반 한국공업화의 前史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이수(1991), 「1930년대 면방대기업 여성노동자의 상태에 대한 연구 : 노동과정과 노동통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 사회학석사학위논문.
- 강이수(1994), 「1930년대 여성노동자의 실태 - 면방직업을 중심으로 -」, 『국사관논총』, 51, 57-101.
- 강이수(2005), 「일제하 근대 여성 서비스직의 유형과 실태」, 『페미니즘연구』, 5, 89-131.
- 권태억(1989), 『한국근대면업사연구』, 일조각.
- 김인호(1998), 『태평양전쟁기 조선공업연구』, 신서원.
- 박기주(2000), 「1930년대 조선의 산업변화와 인구이동」, 『경제사학』, 28, 73-104.
- 박기주(2006), 「식민지 조선의 공장생산액과 노동생산성 증가」, 『경제사학』, 40, 83-117.
- 서형실(1989), 「식민지시대 여성노동운동에 관한 연구 - 1930년대 전반기 고무제품 제조업과 제사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 사회학석사학위논문.
- 안연선(1987) 「한국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여성노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 1930년대 방직공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 사회학석사학위논문.
- 오원철(2006),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동서문화사.
- 이송희(2003), 「일제하 부산지역 방직공장·고무공장 여성노동자의 쟁의」, 『이화사학연구』, 30, 365-388.
- 이상희(2006),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혜안.
- 이우연, 차명수(2007), 「식민지 조선의 임금 수준과 구조」, 『경제사학』, 43, 41-66.
- 이정옥(1991), 「일제하 공업노동에서의 민족과 성」, 서울대학교 사회학박사학위논문.
- 이효재(1978), 「일제하의 여성노동문제」, 김윤한 외, 『한국노동문제의 구조』, 광민사.
- 정진성(1988),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의 여성노동의 변모」, 『한국사회학』, 4(1), 49-100.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1972), 『한국여성사』 2, 이화여대출판부.

허수열(1993), 「日帝下 朝鮮人工場の 動向」, 안병직 증촌철 공편저, 『近代朝鮮 工業化의 研究』, 일조각.

中村政則 編(1985), 『技術革新と女子労働』, 國際連合大學.

佐野陽子 編(1972), 『女子労働の經濟學』, 日本労働協會.

村相はつ(1983), 「産業革命期の女子労働」, 女性史總合研究會 編, 『日本女性史』 4 券 近代, 東京大學出版會, pp.77-114.

Claudia Goldin, Kenneth Sokoloff(1982), "Women, Children,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Early Republic: Evidence from the Manufacturing Censuses",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2(4), 741-774.

Claudia Goldin, Kenneth Sokoloff(1984), "The Relative Productivity Hypothesis of Industrialization: The American Case, 1820 to 1850 The Relative Productivity Hypothesis of Industrialization: The American Case, 1820 to 1850",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9(3), 461-487.

Louise A. Tilly and Joan W. Scott(1987), *Women, work, and family*, New York : Methuen : Routledge, 김영, 박기남, 장경선 공역(2008), 『여성, 노동, 가족』, 후마니타스.